[AI Economist] Fed · IP · 성장·활동

# 미국 산업생산: 예상 웃돌았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전력 수요, 제조업은 정체

2026.10.16 · AI Engineer 조재운 jaeun.jo@daishin.com

9 월 미국 산업생산, 예상치 웃돌았지만 힘의 출처는 전력 수요다

9 월 미국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.7% 증가해 시장 예상 0.4%를 0.3%포인트 웃돌았고, 설비가동률도 76.9%로 예상 76.5%를 0.4%포인트 상회했다.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큰 국면에서 생산이 늘고 가동 여력이 줄어드는 조합은 공급·물가 압력 쪽으로 기우는 신호이므로, 이번 발표는 미약한 악재로 판단한다.

다만 숫자를 뜯어보면 이번 상회분의 대부분은 제조업이 아니라 전기·가스 등 유틸리티 부문(+3.5%)에서 나왔다. 제조업 생산은 전월대비 0.3% 늘어 시장 예상에 정확히 부합했을 뿐이고, 지수 수준 자체도 98.4 로 기준연도(2017 년=100)를 여전히 밑돌며 3 분기 연율로는 0.7% 증가에 그치는 정체 국면이다. 전력 수요가 늘어난 배경에 기온·냉난방 수요 같은 계절적 요인이 섞여 있는지는 원자료로 분리할 수 없어, 유틸리티 증가분을 걸러낸 실제 기저 성장률은 0.2~0.3%대 정체권으로 추정한다. 다만 제조업 외 건설용 공급품(+1.0%), 소재(+0.7%), 광업(+0.2%) 등 다른 부문도 대체로 플러스를 기록해, 유틸리티만 부풀려진 '표면만 좋은' 구조는 아니다. 제조업 내부에서는 자동차·부품 생산이 전월대비 3.0% 줄어 내구재 증가율을 0.1%로 낮췄는데, 이것이 일회성인지는 다음 달 수치로 확인해야 한다.

가동률 측면에서도 전산업 76.9%, 제조업 75.9%는 각각 장기평균(79.4%, 78.2%)을 2.5%포인트, 2.3%포인트 밑돌아 유휴 설비가 여전히 크다. 즉 이번 발표는 '여력이 줄어드는 방향'과 '유휴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다'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. 연방준비제도(Fed)는 9 월 16 일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올려 4.00%(3.75~4.00%) 수준에 진입했고, 향후 1~3 개월은 추가 인상보다 동결이 기본 시나리오로 깔려 있다. 이번 지표는 헤드라인과 가동률이 동반 상회했다는 점에서 그 동결 기조를 흔들지는 않으면서도 추가 인상 논거를 아주 약하게만 보강하는 수준이다. 제조업이 예상에 정확히 부합했고 재화 부문의 가격 전가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강력은 제한적이다.

앞으로 확인할 지점은 두 가지다. 유틸리티 증가가 날씨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, 데이터센터 등 구조적 전력 수요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 다음 달 되돌림 여부가 갈린다. 날씨 요인이었다면 이번 '미약한 악재' 판정은 다음 달 수치에서 소멸할 수 있다. 또한 자동차·부품 생산의 반등 여부와 제조업 지수가 정체권(98.4)을 벗어나는지도 재화 부문 회복 여부를 가리는 분기점이다. 아울러 2026 년 11 월 24 일로 예고된 연례 통계 개정에서 기준연도가 2022 년으로 바뀌면 이번에 제시한 지수 수준과 가동률의 장기평균 대비 괴리폭 자체가 재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.

### 과거와 비교 (같은 분류 최근 분석)

| 발행일 | 핵심 메시지 |
|---|---|
| 2026-10-16 (이번) | 9 월 미국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.7% 늘어 시장 예상 0.4%를 0.3%포인트 웃돌았고, 설비가동률도 76.9%로 예상 76.5%를 0.4%포인트 상회했다. 다만 이 서프라이즈의 대부분이 전력·가스 등 유틸리티 부문에서 나왔고 제조업 생산은 예상에 정확히 부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, 이번 발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더 키우는 미약한 악재로 판단 |
| 2026-09-18 | 8 월 미국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.0%로 정체했고, 그 내용은 제조업(-0.3%)과 건설(-0.7%)의 재화생산 약화를 유틸리티(+1.8%)가 떠받친 구성이며, 가동률까지 장기평균을 밑돌면서 이번 지표는 9 월 16 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가 만장일치로 4.00%(3.75~4.00%)까지 올린 인상 국면에서 추가 인상 논거를 보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왔 |
| 2026-08-18 | 7 월 산업생산은 헤드라인과 제조업이 나란히 전월대비 0.2% 늘며 완만한 확장을 이어갔으나, 기업설비 생산이 강하게 늘어난 반면 소비재 생산은 전년 대비 뒷걸음질하는 이분화가 뚜렷해졌고, 가동률은 여전히 장기평균을 밑돌아 생산 측에서 물가 상방 압력을 읽어내기는 어렵다. |
| 2026-07-17 | 6 월 산업생산 지수는 전월대비 0.1% 올랐지만, 이 플러스는 광업과 유틸리티(전기·가스 등 공익설비)가 만들어낸 것이고 제조업은 두 달 연속 제자리걸음이었다. 재화 부문 경기는 좋게도 나쁘게도 단정할 수 없는 애매한 국면에 들어섰는데, 물가 쪽에서 보면 설비가 남아도는 상황이라 안심할 재료이고 성장 쪽에서 보면 미지근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다.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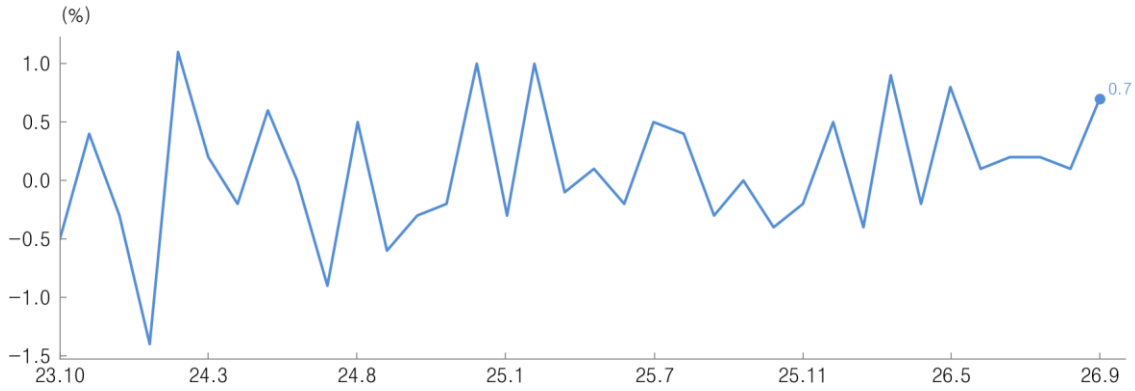
### 9 월 미국 산업생산·가동률 — 서프라이즈의 속살

| 지표 | 9 월 수치 | 비교 기준 | 맥락 |
|---|---|---|---|
| 총산업생산(전월대비) | +0.7% | 8 월 +0.1% → 9 월 +0.7%, 3 분기 연율 +2.8% | 유틸리티 급증이 상회분 견인 |
| 설비가동률(전산업) | 76.9% | 장기평균(1972-2025) 79.4%보다 2.5%p 낮음 | 여력 줄었지만 유휴설비 여전 |
| 제조업 생산(전월대비) | +0.3% | 8 월 -0.2% → 9 월 +0.3%, 3 분기 연율 +0.7% | 정체권, 가격전가력 미확인 |
| 제조업 가동률 | 75.9% | 장기평균 78.2%보다 2.3%p 낮음 | 전월대비 +0.1%p 만 개선 |
| 유틸리티 생산(전월대비) | +3.5% | 전년동월대비 +8.7%, 3 분기 연율 +14.8% | 총지수 서프라이즈의 핵심 출처 |
| 광업 생산(전월대비) | +0.2% | 가동률 87.5%, 장기평균 85.2% 상회 | 설비 전년대비 -0.1%로 분모 축소 영향 |
| 자동차·부품 생산(전월대비) | -3.0% | 내구재 전체 증가율 +0.1%로 제한 | 일회성 여부 다음달 확인 필요 |
| 총지수 레벨(2017=100) | 104.0 | 전년동월대비 +2.2% | 2026-11-24 연례개정서 기준연도 2022 로 변경 |

### 핵심 수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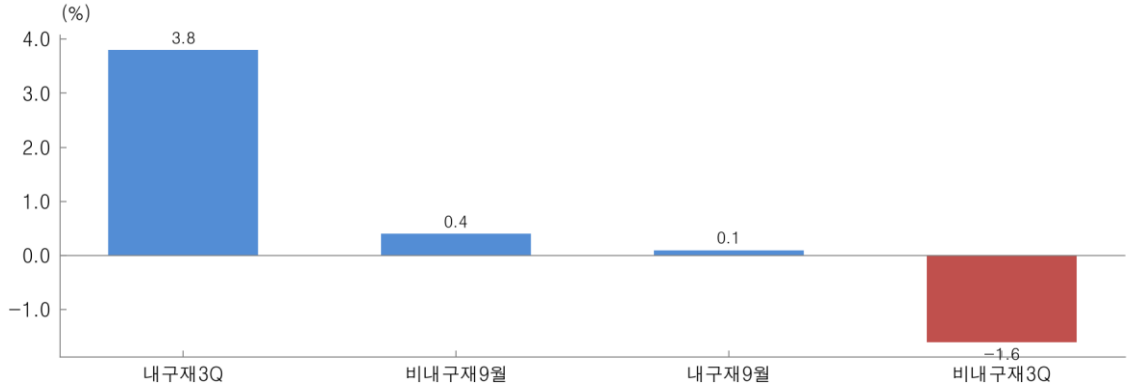
| 지표 | 값 |
|---|---|
| 산업생산 전월대비(%) | 0.7 |
| 제조업생산 전월대비(%) | 0.3 |
| 설비가동률(%) | 76.9 |

## 미국 산업생산(전월비) 3 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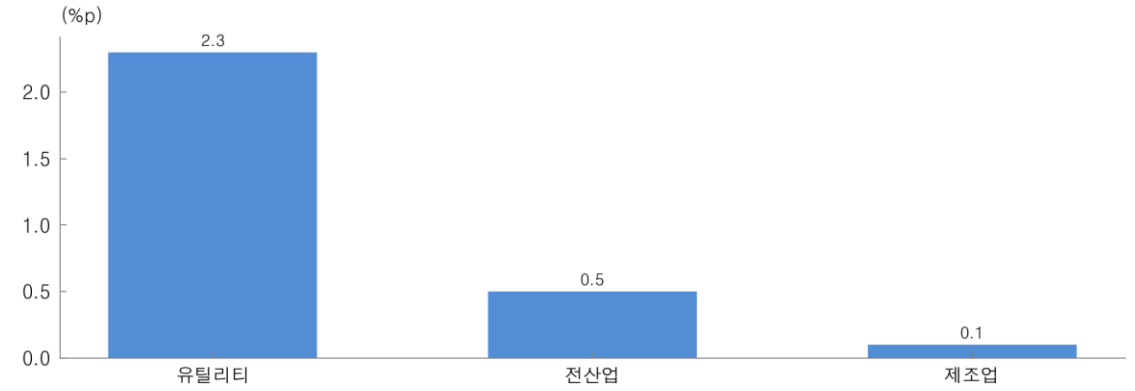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 제조업 내구재·비내구재 증가율: 9 월 MoM vs 3 분기 연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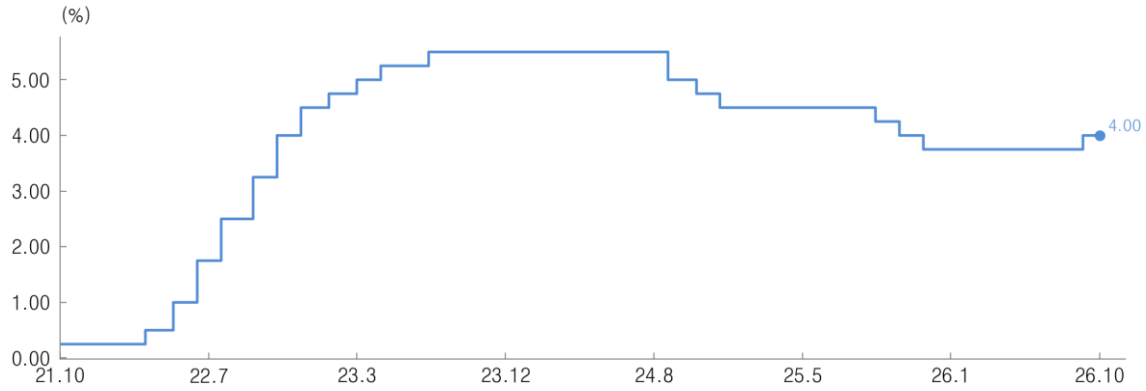

자료: 발표기관 보도자료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 9 월 설비가동률 변화 분해: 전산업·유틸리티·제조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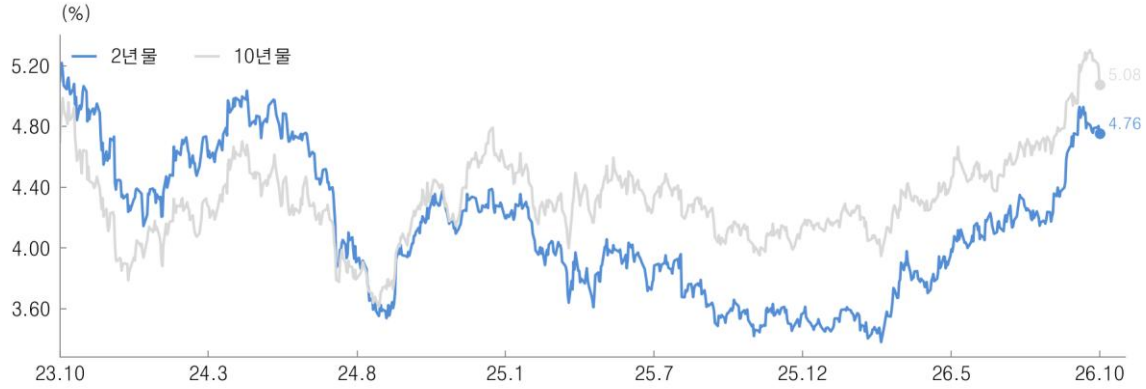

자료: 발표기관 보도자료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 미국 정책금리(연방기금 목표 상단) 5 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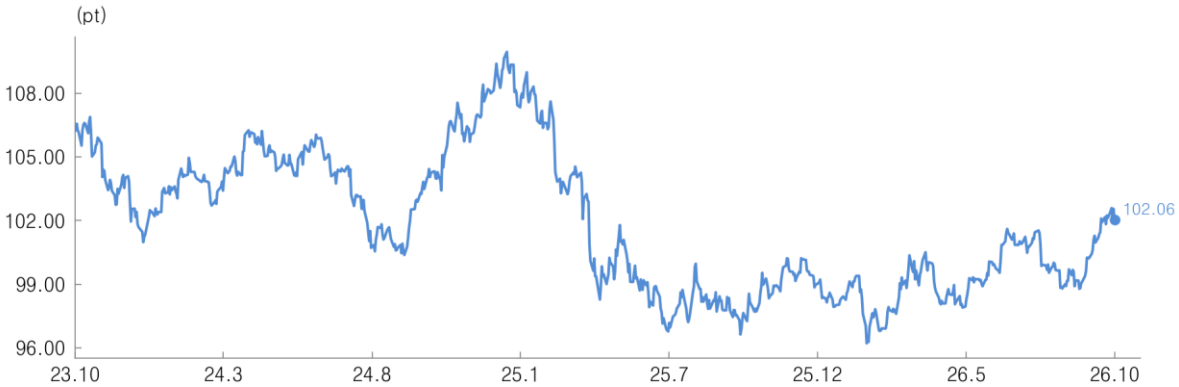

자료: CEIC(2026-10-16 기준)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 미국 국채금리 (2 년·10 년) 3 년
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 달러지수(DXY) 3 년




자료: LSEG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## 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(AI)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,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.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,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.